

日 강제노역 할머니 생생한 증언 담았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양금덕 할머니 등 자서전 발간 시민들 기부금으로 마련...법정투쟁 등 담담히 풀어

10대 어린 나이에 여자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일제 강제노역 피해 할머니들의 삶이 담긴 자서전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통해 발간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양금덕(90) 할머니의 인생을 담은 ‘죽기 전에 듣고 싶은 한마디’, 김성주(92)·김정주(90) 자매할머니의 인생을 담은 ‘마르지 않는 눈물’을 각각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서전의 주인공들은 일제 말기인 1944년~1945년 10대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시달렸다.

양금덕 할머니는 나주대정국민학교(현 나주초등학교) 6학년시절, 김성주

할머니는 순천남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1944년 6월 미쓰비시중공업에 동원됐다.

동생인 김정주 할머니는 “일본에 가면 언니를 만날 수 있다”는 말에 1945년 2월 국민학교 졸업식을 앞에 두고 후지코시 회사로 동원됐다.

이들 모두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 선생이나 담임 선생의 피임에 의해 일본군수업제 미쓰비시중공업 등으로 끌려갔다.

할머니들은 일본에서의 강제노역 피해는 물론, 해방 후 고향에 돌아와서도 ‘일본에 다녀왔다’는 사회적 편견과 오

해 등으로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뒤늦게 용기를 낸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와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명예회복을 위한 일본 소송에 나섰다.

소송은 실패했지만 일본정부가 내놓은 후생연금 99엔은 새로운 싸움의 불씨가 됐고, 이들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를 상대로 광주와 서울에서 다시 소송에 나섰다.

마침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기나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기쁨을 맛봤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방해로 판결 이행을 둘러싼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김정주 할머니가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201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해, 현재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

을 기다리고 있다.

자서전에는 주인공들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재학 중이었던 10대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간 경위, 일본 현지에서 겪은 지진과 미군 공습에 대한 공포, 해방 후 겪어야 했던 또 다른 아픔, 그리고 거듭된 좌절을 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고된 인생역정이 담담히 풀어져 있다.

자서전은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시민들의 기부로 자서전 2권의 발간비 1천만원이 모아졌다. ‘아름다운재단’과 ‘카카오같이가치’에서 진행한 온라인 모금 캠페인에 564명이 직접 기부했으며, 9천384명이 참여기부자로 힘을 보탤었다.

일본 지원단체 ‘나고야소송지원회’에서도 30만 엔(한화 약 316만원)과 함께 축하 현수막을 보내 마음을 보탤었다.

/최명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해질 17:44
달돋음 09:20 달짐 19:49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60 (마스크 챙기세요)
- 빨래 50 (실내 건조 좋아요)
- 세차 60 (세차하기 좋은 날)
- 운동 80 (준비운동은 충분히)

| 지역 | 강수확률(%) | 지역 | 안주 | 간조 |
|----|---------|----|-------|-------|
| 광주 | 30-30 | 목포 | 03:16 | 08:37 |
| 순천 | 30-30 | 목포 | 16:08 | 21:19 |
| 여수 | 30-30 | 여수 | 10:53 | 04:11 |
| | | 여수 | 22:51 | 16:55 |

서해 남부 (풍향/피고)

오전 앞바다 ☁ 남-남서/0.5-1.0m
 면바다 ☁ 남-남서/1.0-2.0m

오후 앞바다 ☁ 북서-북/1.0-2.0m
 면바다 ☁ 북서-북/1.5-3.0m

남해 서부 (풍향/피고)

오전 앞바다 ☁ 남서-서/0.5-1.0m
 면바다 ☁ 남-남서/1.0-2.0m

오후 앞바다 ☁ 남서-서/0.5-1.5m
 면바다 ☁ 남서-서/1.0-2.0m

| 주간날씨 | 전라(광주) | 서울경기(서울) | 강원영동(강릉) | 충청(대전) | 경상(대구) | 제주(제주) |
|---------|----------|------------|----------|----------|----------|---------|
| 1월 16/토 | ☁ (-1/1) | ☁ (-8/-2) | ☀ (-2/4) | ☁ (-4/1) | ☁ (-2/3) | ☁ (4/5) |
| 17/일 | ☁ (-5/1) | ☁ (-11/-2) | ☀ (-7/1) | ☁ (-9/0) | ☀ (-7/1) | ☁ (1/4) |
| 18/월 | ☁ (-2/7) | ☁ (-3/4) | ☁ (-3/7) | ☁ (-3/6) | ☁ (-5/7) | ☁ (3/9) |

▶ 날씨안내 : 국민일보131

쌘짓돈 모아 마스크 기부 ‘감동’ 지적장애 소녀, 광산구청에 전달

區, 홀몸 어르신·취약계층 아동에 전할 예정

광주의 한 지적장애 청소년이 쌘짓돈을 모아 마련한 마스크를 기부해 따뜻한 감동을 전해왔다.

14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께 구청 1층 현관에 사연의 주인공인 A양이 찾아왔다.

북극발 한파가 뒤흔을 쓰던 영하의 추위에 장갑도 끼지 않은 A양의 손에는 선물꾸러미가 들려있었다.

A양은 용무를 묻는 구청 청원경찰에게 “집에 있는 마스크와 모아둔 용돈으로 구입한 마스크를 기부하려고 왔다”고 답했다.

청원경찰은 A양을 기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안내했다.

기부 물품과 후원금을 지역 사회로 연계하는 업무를 맡은 담당자는 대화를 통해 A양이 특수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인이고 부모님 모두 장애인이라서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음을 알게 됐다.

장애로 인해 발음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A양은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과 힘들게 지내는 아이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양이 준비한 선물 꾸러미는 모두 6개였다.

분홍색 포장지로 쓴 4개에는 손으로 꼭꼭 눌러쓴 ‘어린이용’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선물 꾸러미에는 모두 50개의 방역 마스크가 들어있었다.

A양은 “평소 아빠가 우리 가족이 힘들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더 힘든 이웃이 많아서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광산구는 A양이 맡긴 마스크를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아동에게 전달 예정이다.

/고훈석 기자



상큼한 겨울딸기 수확 매서운 동장군의 기세가 한풀 꺾이며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 봉산면의 한 시설하우스에서 빨갛게 익은 세콤달콤한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김영근 기자

광주 정규·기간제 교원 복지 차별 없앤다

광주시교육청은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복지혜택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점수(IP=1천원)가 정규 교원에 비해 적어 인상 필요가 있다”며 “올해부터 정규 교원과 마찬가지로 기본복지점수 600P(기존 500P), 근속복지점수 300P(기존 150P)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업무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기간제 교원에게 맞

충형 복지점수 중 기본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를 정규 교원보다 낮게 배정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다.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관범 기자

광주대 대학원, 전기 신·편입생 추가모집

광주대학교 대학원이 오는 18일부터 2021학년도 전기 신·편입생을 추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반대학원과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보건상담정책대학원 학위 과정별 모집 인원은 총 44명이며 유형별로는 석사 33명·박사 11명이다.

원서 접수는 18일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구비서류 제출 마감은 25일 오후 5시까지다.

입학원서는 대학원 홈페이지(<http://grad.gwangju.ac.kr>)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학교 호심관 4층 대학원 교학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면접은 28일부터 30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2월5일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대 대학원 교학팀(062-670-2605·212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관범 기자

광주매일신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

우리 함께 실천해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것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마스크 착용 필수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시행

주최: **광주매일신문** 후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KFS** 한국농어촌공사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안내

| | |
|-----|--|
| 부과일 | 2020년 11월 13일 ~ |
| 과태료 |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 2차 위반 300만원 |

※ 마스크 불인정 : 망사형, 벨트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형태는 불인정

| 부과대상 예외자 | 부과대상 예외사항 |
|--|----------------------|
| 만 14세 미만, 뇌병변, 발달장애인, 의학적 소견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

마스크 쓸 땐 이렇게 하세요

모든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예외 없이** 마스크 착용해주세요

마스크 밖으로 **입과 코가 나오지 않도록** 밀착해 착용해주세요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 섭취 전/후에, 대화 시** 마스크 착용해주세요